

李대통령 “출범 500일…민생·실용개혁·통합의 길 갈 것”

수보회의서 언급…민생 회복 속도 더더
주거·일자리·금융 문제에 정부 역량 집중
“금리인상 파고 돌파 각별히 신경” 당부
성장 온기 사회 전체로 퍼지도록 총력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내일은 우리 국민주권 정부가 출범 500일을 맞이하는 날”이라며 “어떤 외풍이나 저항에도 굴하지 않고 오로지 민생 개선·실용적 개혁·포용적 통합의 길을 굳건히 걸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대한민국은 거대한 대전환의 갈림길에 서 있으며 이런 때일수록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의 뜻을 살피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사회·경제 정책에 대한 발언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여러 분야에서 괄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금 같은 추세라면 올해 인구 5천만명 이상 국가 중 6번째로 국민

소득 4만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그러나 주요 지표의 우수한 성적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기대하는 민생 회복의 속도는 더디다”고 진단했다.

이어 “국민 실생활의 어려움도 호전된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국가 경제 전체의 성과가 국민 개개인의 삶 속에서 구체적 결실로 이어지도록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그 가운데서도 민생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주거 문제, 일자리 문제, 금융 문제 등에 정부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생애 주기별 실수요에 따른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고, 민간과 공공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을 포괄해 국민 일자리 프로젝트도 빠르게 시행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금리 인상의 파고를 슬기롭게 돌파하도록 정책자금 공급과 금리 인하 지원, 맞춤형 채무조정 등에도 각별히 신경을 더 써달라”며 “청와대와 정부는 올해 남은 기간 이들 ‘3대 핵심 사회정책’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아 성장의 온기가 사회 전체로 고르게

퍼지도록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동시에 “기존의 정책들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정책들도 발굴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임광현 신임 비서실장의 임기가 시작됐다는 점을 거론하며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충분히 토론하면서 어떻게 하면 청와대가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기여할지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시간이 국민에게 부여받은 기회라는 점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한 시간이 5천200만시간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달라”며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책임진다는 막중한 소명을 잊지 말고 직분에 최선을 다해달라” 덧붙였다.

이에 임 실장은 “중책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국민의 삶이 나아지도록 대통령을 보좌해 성과를 내는 데 온 힘을 바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진수 기자

“5·18, 내란극복 큰 의미…헌법에 새겨야”

李대통령, 부마항쟁 47주년 맞아 개헌 강조
“군사독재 붕괴 핵심 동력…여야없이 실천”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5·18민주화운동과 부마 민주항쟁을 헌법 전문에 새기자는 점에 대해서는 여와 야를 가릴 것 없이 모두가 일치된 의견을 갖고 있다”며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할 때”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마 민주항쟁 47주년을 하루 앞두고 주재한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내란을 극복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부마 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은 더욱 큰 의미를 가진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내일은 부마 민주항쟁 47주년

이다. 민주주의와 인권, 언론의 자유를 억압한 유신 정권에 분연히 맞선 부산·마산 시민의 용기는 철옹성 같은 권위주의와 군사독재의 붕괴를 앞당긴 핵심 동력이었다”고 떠올렸다.

이어 “국민 주권의 원칙을 운몽으로 드높인 부마 민주항쟁은 5·18민주화운동과 함께 민주 공화국 대한민국을 떠받치는 자랑스러운 역사”라며 “우리 국민주권 정부도 이런 민주주의의 토대 위에서 비로소 탄생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 헌정의 원칙, 국민주권 주의의 원천인 부마 민주항쟁, 5·18 민주화 운동의 정신은 우리 사회에 더 단단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어야 한다”며 헌법 전문 개정의 필요성을 거듭 부각했다.

/김진수 기자

진성준 “광주 군공항 이전…안보·군사 공백 없어야”

국방위, 공군 1전비 국감 현장 시찰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15일 “광주 군공항 이전과 공군 제1전투비행단 전력의 임시 배치 과정에서 국가 안보와 군사 대비 태세에 한 치의 공백도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전남광주 광산구 공군 제1전투비행단에서 열린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따라 광주 군공항 이전과 제1전투비행단 전력의 임시 배치

가 불가피해지면서 광주 군공항이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고 설명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국가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밝힌 진 위원장은 “이는 단순한 부대 이전을 넘어 군사 대비 태세 유지와 작전 운영, 조종사 양성은 물론 지역사회와의 상생 방안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공항 이전과 전력 재배치 과정에서 군의 임무 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진 위원장은 “국방부도 국가 안보와 지역 발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달라”며 “이번 현장 점검이 제1전투비행단의 임무 수행 여건과 향후 준비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국정감사 현장 시찰 일정으로 활주로 등 주요 군사시설과 장비를 둘러보고 부대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오지현 기자

주철현 ‘여수 돌산갓·식방풍 상품화 전략’ 촉구

“농가 소득 증대…지역 브랜드화” 주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갑)은 지난 14일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여수 대표 특산물인 돌산갓과 식방풍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후속 연구와 상품화 전략 마련을 촉구했다.

주 의원은 이날 여수의 재배환경에 적합하고 여름철 고온에 강하며 향산화물질 함량이 높은 돌산갓 신품종인 ‘늦봄갓’과 ‘서늘갓’의

개발 성과가 농가 소득 증대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돌산갓은 대부분 김치로 소비되는 만큼, 가공업체·소비자와 연계한 후속 연구와 상품화 전략을 마련하고 필요하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한식진흥원 등과도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주 의원은 여수 금오도의 대표 특산물인 식방풍을 활용한 건강기능식품 개발의 조속한 마무리와 지역 브랜드화도 주문했다.

주 의원의 요청으로 2022년부터 시작된 식



방풍 연구는 원료 표준화와 세포·동물실험을 통한 효능 검증을 마쳤으며 현재 기억력 개선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다.

주 의원은 “임상시험과 건강기능식품 원료 인정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는 한편, 식방풍 분말·농축액을 활용한 시제품 개발과 현장 품평회, 홍보 및 산업체 연계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농촌진흥청이 여수시와 지역 농가, 가공업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 여수 특산물의 경쟁력과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힘써달라”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안도걸 “답답한 공공기관 인사…‘임기 일치법’ 시급”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년4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상당수 공기업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동남을)이 15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 대상 공공기관 임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13일 기준 전체 공공기관장 27석 중 13석은 전 정부 임명 인사였으며 그중 62.2%는 22

7년 이후에야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안 의원은 “임기만료된 기관 대부분에서 공모 등 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나, 전 정권의 알박기 인사나 법적분쟁 등으로 일부 인선에 어려움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등 국회에서 관련 법률 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60415-중-211304호

건강검진

매일 체크 ✓ 행복 체크

예약 및 문의 062)363-4040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